

과감한 신작 개봉...14개 수입사 뭉쳤다

‘모리의 정원’ 등 10편 릴레이 개봉
“영화 생태계 유지·상생 위한 기획”
영화발전기금 징수도 유예하기로

위기 속에서도 희망은 피어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영화계 안팎에도 어려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한국영화는 물론 할리우드 블록버스터까지 개봉을 연기하는 상황에서 국내 중소 영화수입사들이 합심해 위기 극복을 위한 기획전 ‘영화로운 일상을 위한 신작전’을 연다. 영화수입사 그라나데미디어, 진진 등 14개사가 속한 영화수입배급사협회가 19일부터 매주 3~4편씩 모두 10편의 신작을 잇따라 개봉할 예정이다. 일본 배우 키키 기린의 유작 ‘모리의 정원’을 비롯해서 최근 영화계 성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주목받은 아벨 에블 주연의 ‘그 누구도 아닌’ 등이다. 저마다 메시지가 분명하고 완성도를 갖춘 작품으로 꼽힌다.



‘모리의 정원’



‘그 누구도 아닌’

이번 기획전은 올해 2월 극장 관객이 737만명으로 2005년 이래 최저치(영화진흥위원회)일 만큼 최악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이다. 관련업계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관객의 문화 향유 기회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영화수입배급사협회 관계자는 15일 “영화 제작과 수입·배급·극장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영화계의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고 관객의 문화적 일상도 유지해 상생하자는 기획”이라고 밝혔다. 관객이 급감했지만 작품성이 뛰

러한 독립예술영화와 ‘스타이즈 본’ ‘메멘토’ 등 재개봉 영화가 꾸준히 관객의 선택을 받는 상황도 이번 기획전이 만들어낼 새로운 바람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위기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댄 논의는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기도 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진흥위원회를 통해 극장 관람료의 3%를 의무적으로 징수해온 영화발전기금의 납부를 올해 연말인 12월31일까지 유예기로 했다.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극장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체납 가산금을 면제해주는 정책이다.

영화계에서는 이를 환영하면서도 좀 더 세밀한 방식으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상영관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상영발전협회는 “관객이 크게 줄어들면서 폐업 위기에 처한 상영관의 현실”을 적극 반영해 영화진흥위원회에 영화발전기금의 완전 면제를 촉구했다. 현재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혜리 기자 giff1024@donga.com

연예뉴스 HOT 3

헤림, 태권도선수 신민철과 교체증

그룹 원더걸스 출신 헤림(28)이 태권도 선수 신민철(34)과 교체 중이다. 헤림은 최근 SNS를 통해 신민철과 7년째 사귀어 왔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연애기를 MBC 예능프로그램 ‘부러우면 지는 거다’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헤림은 2010년 원더걸스 멤버로 데뷔해 활동한 뒤 현재 한국외대 통역번역커뮤니케이션학과에 재학 중이다. 신민철은 태권도 시범단인 코리아 타이거즈와 국가원 태권도 시범단원으로 활약했다.

몬스타엑스 전 멤버 원호, 대마초 무혐의

지난해 10월 대마초 흡연 의혹에 휩싸인 그룹 몬스타엑스의 전 멤버 원호가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몬스타엑스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14일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0일 원호의 대마 등 마약 혐의와 관련된 조사를 종료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올해 ‘전주국제영화제’ 5월 28일 개막

올해 전주국제영화제가 5월28일부터 6월6일까지 열린다. 전주국제영화제는 15일 이같이 밝혔다. 전주국제영화제는 매년 4월 열리는 무대로, 한국의 대표적인 영화 축제 중 하나다. 하지만 올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정을 연기하고, 5월28일 막을 열기로 했다. 한편 부산국제영화제는 올해부터 개막 요일을 하루 당겨 수요일인 10월7일 개막한다. 또 “내실을 강화하기 위해” 예년보다 초청작을 다소 줄인 260여편 상영한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방구석 예능’으로 웃는 안방극장

‘놀면 뭐하니?’ 방구석 콘서트 호평
‘유 퀴즈’ ‘끼리끼리’ 등 공간활용 눈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야외촬영 취소 소식이 잇따르는 방송가에 ‘방구석 예능’이 뜨고 있다. 촬영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놓은 궁여지책이지만, 오히려 출연자 사이의 끈끈한 호흡이 돋보이면서 시청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더욱 눈길을 모은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예능프로그램들은 저마다 외부 촬영을 취소하고, 최

소한의 인원으로 스튜디오에서 녹화하는 방침을 세웠다. 자연스럽게 각 프로그램 제작진은 ‘방구석’ 특집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MBC ‘놀면 뭐하니?’는 최근 코로나19로 공연을 취소한 가수 이승환을 비롯해 장범준, 밴드 핵오 등을 섭외해 ‘방구석 콘서트’ 특집을 방영하고 있다. 유재석과 조세호가 길에서 시민과 만나온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도 실재로 들어갔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최전선에 있는 의료종사자 영상 인터뷰를 내보내 시의성과 감동을 함께 전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MBC ‘끼리끼리’나 SBS ‘런닝맨’ 등 야외



MBC ‘놀면 뭐하니?’

버라이어티 장르 프로그램들도 스튜디오나 방송사 사옥 등으로 무대를 좁혔다. 제작진은 코로나19 여파로 시시각각 변하는 각 프로그램의 촬영현장을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아 소재로 삼았다. 갑작스럽게 변경된 아이템에 당황하고 부랴부랴 대처에 나서서 출연자들의 모습이 오히려 “새로운 재미를 안

긴다”는 호평을 이끌어냈다.

일부 프로그램 제작진은 불가피하게 스태프 모습이 카메라에 비치면서 감염병 확산에 대한 시청자 우려를 자아낼까 세심한 배려를 하기도 한다. tvN ‘마포 멋쟁이’ 등은 폐쇄된 공간에서 제작진이 있는 모습을 내보일 때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촬영했다”는 안내문을 내보내고 있다.

각 예능프로그램은 코로나19 여파에 한껏 예민해진 시청자의 눈높이를 맞추는 새로운 과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한 예능프로그램 PD는 “작은 공간에서 진행할 수 있는 소재는 한정적”이라며 “다른 프로그램과 겹치지 않으면서도 시청자에게 재미를 줄 아이템을 내놓기 위해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방탄’ 삼킨 코로나? 월드투어 취소되나

내달 서울공연 이어美 공연도 불확실

그룹 방탄소년단의 ‘월드투어 연기’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다음달 현지에서 열릴 예정인 방탄소년단의 월드투어가 연기 또는 취소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방탄

소년단은 앞서 4월11일(이하 한국시간)부터 4회에 나눠 펼치기로 했던 서울 공연을 취소한 바 있다.

방탄소년단은 4월25일과 26일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리바이스 스타디움에서 미국 첫 투어 무대를 연다. 이후 또 다른 7개 도시를 돌며 모두 16회 공연을 펼친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공연 개최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을 맞았다. 실제로 리바이스 스타디움 측은 13일 트위터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 지침에 따라 14일부터 추가 공지가 있을 때

까지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태가 얼마나 장기화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미국 공연기획사들도 코로나19 확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당분간 대규모 공연 개최를 중단하고 나서기도 했다. 거대 공연기획사인 AEG프렌즈와 라이브인선엔터테인먼트가 이달 말까지 미국 아레나 투어를 중단했다. 앞서 미국에서는 이달 열릴 북미 최대 규모의 음악 콘서트 축제인 사우스바이사우스웨스트가 행사 개최지인 텍사스주 오스틴 당국의 명령에 따라 취소됐다.

이에 따라 방탄소년단도 미국 상황을 예

의주시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 공연을 취소했을 때처럼 미국 공연 역시 개최 한 달 전 시점에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15일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 추후 변동 사항이 있으면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최근 테워드로스 아드하눔 거버리여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으로부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더 세이프핸드 챌린지(THE SAFEHANDS CHALLENGE·손씻기 챌린지)’ 동참 요청을 받았다. 실형 여부가 주목된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교육·퍼즐

에듀윌

코로나19 확산으로 변화한 채용 트렌드

강주현의 퍼즐월드

WWW.경품광고퀴즈.kr WWW.매직스도쿠.kr

“시사상식 정보 중요...최신 교재 활용해야”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채용 트렌드에도 변화가 생겼다. SK이노베이션은 화상면접 도입을 발표했으며, 채용 설명회도 박람회 대신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특히 채용을 연기하는 기업들도 많아 철저한 준비를 위해 더욱 열중하는 취준생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최근의 채용에서는 NCS 중심의 인적성 시험은 물론 논술이나 면접 등 시사상식에 대한 정보가 매우 중요해졌는데, 취업 경쟁력을 위해 미리 준비하는 취준생들이 매우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상식은 시의성이 중요하므로 최신 출간된 교재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매월 중요한 시사상식만 모아 출간되는 시사상식 교재도 있어 잘 활용한다면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익힐 수 있다.

이와 관련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이 발행하는 ‘월간 시사상식’이 한국잡지협회 주관 ‘2020년 우수콘텐츠잡지’



에 선정됐다.

한국잡지협회는 매년 질적으로 우수한 콘텐츠를 보유한 잡지를 선정하고 있는 가운데, 에듀윌 시사상식이 2020년 우수콘텐츠잡지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한 것.

에듀윌의 시사상식은 공기업, 언론사, 금융권, 대기업 취업 등에 필요한 최신 시사상식이 담긴 매거진으로 온라인 서점 관련 부문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이번 3월 호에서는 상반기 공채 시즌을 맞이해 저소서에 활용하고 면접에도 도움 되는 특별부록 ‘10대 기업 주요 이슈 모아보기’를 수록했다.

에듀윌 시사상식 수험서는 정기구독도 가능하다.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 및 구매는 에듀윌 도서를 믿은·오프라인 서점을 통해 가능하다.

1~9까지의 숫자를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 스도쿠문제

		3	5	7	8			
8			2	9				
4	9			1	2			
	3		9		4			
5		1	3			6		
	9		4		1			
2	8			4		5		
		5	2			1		
1	5	8	6					

	4			6			3	
9			3		4			5
		3		8		2		
	1		4		3		9	
2	6					1		4
	8		1		6		5	
		4		9		7		
6			7		1			3
	7			3			2	

■ 스도쿠정답

7	2	9	4	8	6	5	1	3
1	4	8	2	7	5	9	4	6
9	6	4	1	9	3	8	7	2
3	1	5	8	7	2	6	9	4
2	6	8	3	1	4	7	5	9
4	8	1	6	5	9	3	7	2
5	2	1	5	9	4	6	8	7
8	3	6	4	1	2	7	9	5
6	2	7	5	3	9	1	4	8
3	8	5	1	4	7	2	6	9
9	1	7	8	6	2	4	5	3
2	5	2	6	9	8	4	7	1
4	7	1	6	5	9	8	3	2
8	9	6	3	2	4	5	1	7
4	1	4	1	2	8	6	9	5
5	9	8	4	1	8	7	2	6
7	3	6	2	9	5	4	8	1